



봄바람! 꽃바람! 연바람!

의성골 수놓을 연들의 향연

‘봄바람! 꽃바람! 연바람!’ 한지마을 집산지로 유명한 경북 의성에서 ‘산수유 꽃바람’에 세계 각국의 연들을 봄 하늘에 일제히 띄우는 초대형 이색 국제행사가 열린다.

‘세계로 날리자, 미래로 띄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의성 산수유 꽃바람 국제연날리기대회’는 경북 의성군이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이색 봄맞이 국제행사로 주목받는 이 대회는 의성군 의성읍 종합운동장과 안계령야위천 둔치, 봉암면 탄산온천관광지 등 모두 3곳에 주 공연무대와 국제연날리기대회를 각각 마련해두었다.

대회 기간 내내 추임새로 의성 산수유축제도 열어 봄맞이의 신명과 분위기를 한껏 북돋운다.

◇다채로운 국제 연날리기대회=이번 국제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중국과 일본,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이스라엘과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24개국. 연별 조선족들도 우리 전통 민속 연을 가지고 참가한다.

세계에서 가져온 각양각색의 연은 보트연, 스포츠 연, 수중연, 낚시연 등 200여가지에 이른다. 낮에 띄우는 일반연 뿐만 아니라 밤에 띄우는 LED 조명연과 크고 작은 호각과 피리를 단 소리연, 기름솜을 태워 하늘을 밝히는 불연 등을 올려 밤하늘을 수놓는다.

특히 대륙연의 대표적인 용연과 선녀연, 거북이연을

31일부터 4일간 24국 전통연 경연

보트연·낚시연 등 200여가지 선배

산수유 축제·연 전시·체험 행사도

비롯해 나비 잠자리 등 곤충연과 독수리, 부엉이 등 새 연은 중국 선수팀이 집중 시연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사무라이들이 성안으로 은밀하게 침투하기 위해 타고 날아 올랐던 일본 전통연과 자동차로 끌어야만 겨우 띄워 올릴 수 있는 초대형 연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전국연날리기대회와 산수유 축제=개르마늘 온천으로 유명한 의성탄산온천관광지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송구영신 연날리기와 방패연, 가오리연 등 우리 전통연들이 선보인다.

상대방 연에 연줄을 걸어 시비를 가리는 전통 연싸움은 구경꾼들조차 탄성을 자아내는 볼거리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를 때 신호로 쓴 방

패연과 높이 띄운 다음 연줄을 잘라 ‘역운’을 멀리 떠나 보내는 송구영신 민속 연 이벤트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우리 전통연도 체험할 수 있다. 연 만들기 체험행사와 연 날리기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대회 기간 동안 수십년째 이어온 봄맞이 행사인 의성 산수유축제도 함께 열린다.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일원에 자생하는 산수유는 수령이 300여년생이나 돼 꽃이 피면 마을 전체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세계 연전시회와 달집태우기=법선 연과 삼자 연, 울메미 연 등 수백가지의 전통연과 창작연 등 다채롭기 이를 데 없는 세계의 연들을 한자리에 전시한다. 국제연날리기대회장 내 전시장에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해 뒤 참가자들은 누구나 각종 연들을 날려 볼 수 있다. 주변에 살거리와 먹을거리를 위한 부스도 마련한다. 의성을 중심으로 한 안동과 영주, 문경, 예천,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농산물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을 전시 판매한다. 초대형 달집태우기 행사도 벌인다.

높이 25m, 둘레 20m 크기의 1톤 트럭으로 옮겨온 100대 분량의 메머드급 달집을 만들고 폐막식 전날 야간 행사로 불꽃놀이와 함께 달집태우기 행사를 펼친다.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의성의 최대 건강식품은 마늘이다. 통통하게 여문 육쪽마늘은 의성 이외의 지역에서 찾기 힘든 귀한 명품 농산물이다.

생마늘 이외에도 흑마늘 건강식품이 액기스와 환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돼 고객들을 기다린다. 나른한 봄날 까칠한 입맛을 되찾아 주는 데 의성 마늘고추장도 일품이다. 인근 안동 재래시장을 찾아가면 안동고동어와 안동버리찰떡, 안동식혜, 안동절편, 안동햇제사밥 등도 즐비하다. 영주지역에서는 풍기인삼과 고구마빵, 생강도너츠, 능이갈국수 등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매일신문=이희대 기자 hdee@msnet.co.kr



2010전국연날리기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



태극문양이 새겨진 연을 띄워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회(2010전국연날리기대회) 참가자들

“대한민국 국운 상승과 국민 안녕 위한 화합 큰 잔치”

조직위원장 김복규 의성군수

“2011 의성 산수유 꽃바람 국제연날리기대회”를 위해 33년을 준비했습니다. 축산농들과 모든 국민에게 시름을 안겨줬던 구제역과 AI는 이제 각양각색의 연에 대달아 높은 하늘로 멀리 날려 버렸습니다. 이번 대회야말로 송구영신과 대화합의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의성 국제연날리기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복규 의성군수는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의성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국운 상승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프로그램을 짰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회를 여는 특별이벤트로 1300여년만에 재현하는 기풍제(祈風祭) 행사는 의성의 옛 부족국가인 조문국의 찬란했던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귀띔해줬다. 거대한 달집태우기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8개국

을 비롯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5대륙 6대주 23개국 선수들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특이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회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과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장을 운영하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는 23개국 선수들을 글로벌 의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해 의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대회기간 사곡면 화전리 일원에서 열리는 ‘산수유 축제’도 주목해 달라고 한다. 황토밭에서 싹을 틔운 녹색의 마늘잎과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봄의 대향연으로 특히 도시민들에게는 대자연에 호흡할 수 있는 여유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매일신문=이희대기자 hdee@msnet.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이사 최 금 환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제주도

오렌지리조트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 2박3일 ★ 목포-제주도 ₩139,000원 ~
- 2박3일 ★ 장흥-제주도 ₩159,000원 ~
- 2박3일 ★ 항공-제주도 ₩249,000원 ~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 1박2일 ₩279,000원~
- 2박3일 ₩309,000원~

2011 봄 미국/캐나다

- 9일 ★ 미서부 3대캐년 태평양 해안 완전일주 ₩2,390,000원 ~
- 9일 ★ 미동부/캐나다 동부(퀘벡) 나이아가라 완전일주 ₩2,890,000원 ~
- 13일 ★ 미서부(3대캐년)/미동부(나이아가라)완전일주 ₩3,590,000원 ~

불포함: 각종팁(가이드/기사 1일/1인 \$10, 식당, 호텔 \$1), 5월이후 유가할증료 인상분, 선택관광, 미국 ESTA 비자피(\$14 - 대행시 20,000원)

중국

- 3박4일 ★ 무안-상해,황산 ₩739,000원 ~
- 4박5일 ★ 무안-북경,태항산 ₩899,000원 ~
- 4박5일 ★ 무안-상해,장가계,천문산,항주 ₩1,089,000원 ~

불포함: 개인적인 경비

두근두근 봄에 떠나는 첫여행

조이 여행사와 함께 하세요~!

동남아

인천-싱가폴

- 5일 ★ 싱가포르 / 조호바루 / Batam ₩799,000원 ~
- 5일 ★ 싱가포르 / 빈탄 ₩779,000원 ~

불포함: 기사가이드팁(\$40), 비자피(\$15), 향만세(\$20)

인천 - 베트남/캄보디아

- 6일 ★ 베트남 / 캄보디아 ₩769,000원 ~

기사&가이드팁(\$50), 생수, 룬레샵사공팁(\$2), 캄보디아 급행비자피(\$25)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 2년형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 공동주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원금 가입(예상금: 1억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차역 • 경비(음료, 탄,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 상의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예수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